

“익산불교 활성화 원년으로”

사ाम련·신도단체, 조찬법회서 선언

불자비율 10% 불과...모임 정례화 하기로

1월 11일 아침 7시, 익산 그랜드호텔 대회의실에서 조찬법회가 열렸다.

신년초가 되면 지역마다 흔히 열리는 법회지만, 익산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참석자들이 하아급 가슴벅차게한 ‘야단법석’이었다.

“익산불교 활성화 원년”을 선언하는 법회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날 법회는 스님과 불자들이 처음으로 지역기관장을 초청한 법회로 불교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했다.

신년하례를 겸한 이날 법회에는 지광(익산불교사암연합회장)·향봉(사자암 주지)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강현욱 전북지사, 채규정 익산시장, 진교동 익산교구장, 김복현 익산문화원장 등 지역기관장, 익산능인회 박중근 회장, 대한회 김덕순 회장 등 익산의 7개 신행단체장과 재가불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찬법회를 주최한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이의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익산은 불자가 10%로 내외로 더이상 밀려서서는 안되겠기에 급년을 익산불교 활성화 원년으로 선언한다”며 “지역 스님과 신행단체가 하나 되어 익산불교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기록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

가는 대승불자가 되자”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함께 고민하고 실천수행하자”고 말했다.

또한 익산불교사암연합회장 지광 스님은 발언문에서 “오랜 잠에서 깨어나 구경성불의 그날까지 깨달음을 구하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생활불교가 피어나기”를 기원했다.

이날 조찬법회에 참석한 강현욱 도지사와 채규정 익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익산은 불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도시이다”

며 “문화국가 대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지역불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불교는 지난해 불족행사 무산으로 지역불교 위기까지 대두되는 최악의 상태였다. 새해를 앞둔 지난달, 각 사암 스님과 단체장들은 “더이상 밀려설수 없다”는 각오로 조직정비에 나섰다.

지광 스님(승림사 주지)은 “익산불교 활성화를 위한 사부대중 간담회”를 개최해 사암연합회를 추스르고, 7개 신행단체장이 모여 익산불교신도연합회를 결성했다.

이처럼 급년을 ‘익산불교 활성화 원년’으로 선언한 익산불교 사암련과 신도연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이날 첫 모임으로 조찬법회를 마련했다.

글·사진/익산=이준엽 기자



익산불교활성화를 위해 익산불교사암련연합회와 신도연합회가 주최한 조찬법회 모습.

제주도 템플스테이 상설화

약천사 광명사 올해부터 운영

올해부터 제주도에서도 템플스테이가 상설 운영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06년도 템플스테이 운영 사항’에 서귀포시 약천사(주지 원조)와 서귀포시 광명사(주지 수보)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불교문화의 정수를 선보일 수 있어 포교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약천사와 광명사측은 템플스테이 운영 사항 포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지난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실사 당시 미비한 점으로 지적된 점을 보완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광명사 주지 수보 스님은 “템플스테이 예약 및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관광지와 공항·항만에 비치하는 등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관련 기관에서도 템플스테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템플스테이가 제주지역 관광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 지자체에서도 “2006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템플스테이 홍보방안을 구상 중이다. 남동우 기자



청주·청원불교연합회 기자회견 모습.

하이닉스 노사화합 당부 청주청원불교련, 기자회견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가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하이닉스 매그너칩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사진). 연합회는 1월11일 오전11시 청주 옹화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지역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경제 위



광주 정광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골든벨 도전자들에게 ‘파이팅’ 응원을 펼치는 모습.

종립 정광고 골든벨 울렸다

‘툼버니’에서 골든벨이 울렸다. 불교 종립학교인 광주 정광고등학교 3학년 박나영양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퀴즈프로그램 ‘KBS 도전! 골든벨’(KBS1 1월 15일 방영)에서 제 53대 골든벨에 등극해 화제.

지난달 7일 정광고 톼버니관(체육관)에서 골든벨을 울린 박양은 “현장에서 긴장해서 얼

떨떨했으나 부 모님이 기뻐할 때 골든벨의 주인공이 됐음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찬스”한번 쓰지 않고 50문제를 풀어난 박양은 골든벨 녹화중에 “시장에서 고생하며 3남매를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에게서 인내심을 배웠다”며 울먹여 청중을 숙연케 하기도.

“다양한 독서와 학업에 충실하는것이 골든벨을 울린 정석”이라고 밝힌 박양은 “의사가 되어 의학연구에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 문제를 발표한 정영인 교장은 “불자들의 원력으로 건립된 종립학교

이기에 골든벨을 울릴것이다”고 확신했다며 “정광고는 광주 최초의 골든벨과 금번 수능에서 자연계열 수석을 배출하는 등 지역 최고의 명문이다”고 소개했다.

정 교장은 또한 “불교 청소년체인 파라미타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부한 편이어서 10년 넘도록 별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

다”며 “교직원들과 함께 부처님의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후

학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듬해 교편사는 “지난해 4월 건립된 톼버니 관은 울림의 규모를 갖춘 600석 규모의 메머드 체육관으로 골든벨이 울려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정광학원(이사장 현운 스님)은 1946년 백양사 만암 스님을 중심으로 지역 사암과 불자들에게 의해 건립됐으며 정광중·고에 2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부처님 자비’를 건학이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성도재일 기념법회 봉행 모습.

성도재일 기념법회 봉행 대전 청림회 장학금 전달

대전 비구부 청림회(회장 영진)는 성도재일 대법회를 1월 8일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봉행했다(사진).

영흥회 대전시장, 교수불자회원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김통사 회주 자광스님의 법문과 연합회장단의 찬불가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청림회는 충남대 대불련 회원 5명과 보문중고교 학생 14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혜철 대전·충북 지사장



한마음선원 어린이수련회 모습.

한마음선원 어린이수련회 광주 통영 등서 150명 참가

한마음선원 어린이 겨울 연합수련회가 1월 10-11일 양일간 광주지원에서 열렸다.

“잇! 주인공과 얘기중이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대회에는 광주 통영 진주 대구 목포지역 어린이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선재동자가 구도의 길을 떠나는 화엄놀이, 쫓발제, 발우공양 등으로 마음공부를 하고 눈썰매장에서 놀이 한마당으로 화합했다. 이준엽 기자

축 심화 등 중복불교계의 우려를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혜철 대전·충북 지사장

제천사암련, 성도재일 법회 5천여명 참석...화합의 한마당

제천불교사암련(회장 무암)은 성도재일 특별대법회를 1월 7일 오후 2시 제천문화회관에서 엄대영 제천시장과 서재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행했다(사진). 이날 대법회는 성도재일 기념 의식과 축하 공개방송 등으로 진행됐다. 청주불교방송이 주관한 성도재일 축하



제천사암련, 성도재일 법회 모습.

공개방송에는 김태곤, 장미화, 선오스님, 이현민, 석기영, 유미, 신준아 등 유명 불자 가수들이 대거 참가해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었다. 성도재일 축하 공개방송은 1월 15일 청주불교방송 “음악의 마을”을 통해 방송됐다. 혜철 대전·충북 지사장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4일개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8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불교사상 · 불교법률 · 불교심리학	· 무전장스님(분대학학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중석(금강대교수) · 윤연수(문화재단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환안스님(금강신원총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원(동국대교수) · 최중석(금강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경포교원장) · 김상현(동국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업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영구반·주간반·통산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경제문화학과(50명)	불교를 적극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불교학과] 2006년 1월 1일~ 2006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영구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경제문화학과)	통산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

4. 입학 일시 불교학과 : 2006년 2월 4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불교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경제문화학과: 2006년 3월 6, 7, 8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14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본 대학사무국 (02) 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심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센터 (064) 743-4184
* 특선시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동산불교대학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위의와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5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6학년도 제15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①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④ 사찰·포교원 등 특시 행정사항 보호반도록 지원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6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팩스 접수가능)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